

# 대우건설, "It's Possible"

(주)대우건설

**희**망찬 2004년 갑신년 새 아침이 밝았다. 아마도 우리 나라에 제일 먼저 새해의 태양을 맞을 수 있는 곳이 현재 대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신월성 원자력 1·2호기 현장이 아닐까 한다.

지난 1999년 8월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약 4년 4개월 동안 전 임직원의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2003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졸업한 대우건설에게 2004년은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2004년은 대우건설이 독자 경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원년이다. 2003년도 경영 실적을 살펴보면, 수주가 전년 대비 20% 증가한 6조 5천억원, 매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4조 1천억원, 영업 이익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3,400억원이다. 부채율 또한 170%로 경영 정상화를 넘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우량 기업으로 재탄생한 해였다.

또한 회사는 초일류 대우건설로 발돋움 하기 위해 새로운 사령탑으로 박세흠 사장을 모시고 6개 본부와 6개 실/소로 편성된 조직 정비를 하였다.

사장을 필두로 하여 대우건설 전 임직원은 다음의 세 가지를 목표로 하여 최고의 건설 회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이다.

먼저, 지난 IMF 사태 이후 전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어려움을 극복했던 소중한 경험을 대우건설의 새로운 기업 문화와 전통으로 이어가고, 둘째로, 최고의 기업 가치를 창출하여 주주와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 하는 것이 전 임직원의 보람과 긍지가 되도록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셋째로, 21세기의 기업 환경은 건전한 기업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끊임 없는 자기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여 더 넓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 갈 것이

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이러한 회사의 목표에 부응하여 원자력 분야에서 새로운 비전 제시와 더불어 기존의 국내외 원자력 사업에 대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 원자력 사업의 비전

대우건설은 그간 월성 원자력 3·4호기의 성공적인 준공, 중국 진산 원전에 기술 자문 및 기자재 공급, 대만 용문 원전(ABWR 1,350MW×2개 호기)에 기술 용역 제공, 북한 신포에 건설중인 KEDO 원전 참여 등을 통해 국내 외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다.

작년에는 국내 최초로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에 삼중수소 제거 설비 설치 공사를 수주하여 현재 28%의 공정에 달하고 있다.

또한 개량형 한국표준원자로

(KSNP+, 1,000MW급)로 건설되는 신월성 원자력 1·2호기를 수주하여 현재 인허가가 완료되는대로 부지 정리 공사를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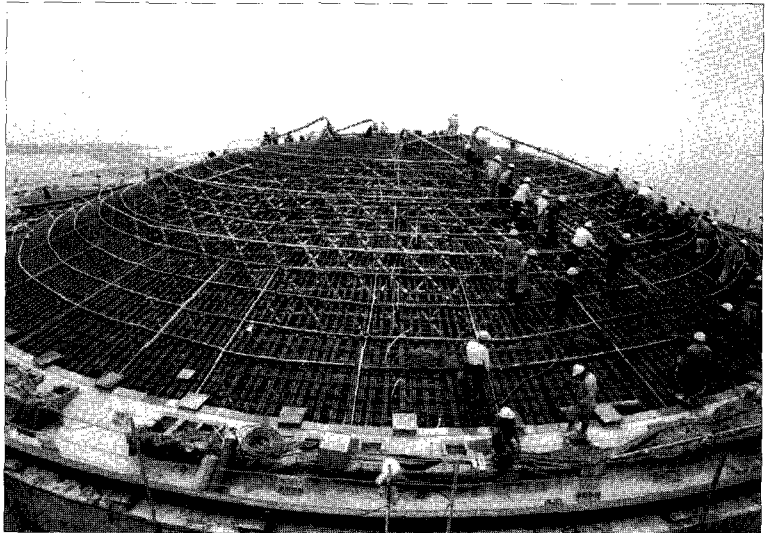
이러한 일련의 우수한 실적은 원자력 분야에 대한 후발 업체로서 갖는 약점을 높은 기술력과 완벽한 품질로 극복한 결과이다.

그러나 회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04년부터는 미래의 원자력 사업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신고리 원자력 3·4호기를 시작으로 국내의 원전은 신형경수로인 APR-1400으로 건설된다. 대우건설은 노형은 상이하지만 이미 대만에서 1,350MW급 대용량 원전 건설에 대한 기술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대용량 원전 시공 경험의 확보 여부는 APR-1400의 시공 참여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회사는 신월성 1·2호기를 수행하면서 자체 기술팀을 주축으로 하여 경수로 건설 기술 지식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모든 원전 건설 정보 및 자료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구축하고자 하는 기술 지식화는 Online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료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면·자재·공법·인



지난 1999년 8월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약 4년 4개월 동안 전 임직원의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2003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졸업한 (주)대우건설에게 2004년은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력·공사비·장비 등 모든 시공 관련 정보가 하나의 Activity 아래 취합되고 관리되며 특별히 담당 키사가 경험한 시공상의 노하우도 함께 기록, 저장할 예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는 APR-1400 참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로 상용화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핵융합 발전과 같은 근본적인 대체 에너지원이 개발되어 실용화되기까지는 원전은 대안이 아니라 필수 에너지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현재 건설중인 원전이 없는 미국의 경우 기존의 원전 수명을 성능 향상을 통해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하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약 23기 정도가 연장 운전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일본·캐나다·프랑스·러시아·헝가리 등도 연장 운전을 시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1978년과 1983년에 각각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경우 2008년과 2013년이면 각각 설계 수명(30년)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회사는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및 성능 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후 북미 지역을 포함하는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도 모색할 예정이다.

작년 한해는 원전수거물관리센터 건설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전국이



뜨거웠으며 심지어는 부안 지역에 심각한 혼란 상태를 초래한 한 해였으며 금년에도 동 문제가 원자력계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원자력이 필수적인 전원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한 원전수거물관리 센터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회사로서는 사업주인 한수원과 함께 동 시설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면서 2006년 초에 예상되는 동 사업의 발주에 대비해 나갈 것이다.

주지하시다시피 국내 원전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한정된 공사 물량에 여러 회사간 경쟁 및 최저가 낙찰제의 적용으로 인해 어느 회사가 신규 원전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어려운 환경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원전 시공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원전을 도입 추진중이거나 이미 원전을 건설 중인 개발 도상국을 대상으로 기술을 수출하는 데에도 노력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17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1,000MW급 2기의 원전을 건설 추진중인 베트남, 2016년 최초의 원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2009년도 준공 목표로 공사가 재개될 예정(체르나보다 3호기)인 루마니아, 올해 초

1,000MW급 4기의 신규 원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2020년까지 20여기에 달하는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중국 등을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한수원을 포함한 국내외 관련사와 함께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9월에 한 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한 전기공·한전원자력연료·한국원자력연구소·두산중공업·대우건설·현대건설 등 8개 기관이 해외 원전 시장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회사는 이러한 원자력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대비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원자력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원자력 사업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물론 수익성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월성 원자력 1·2호기 주설비 공사**

우선, 신월성 원자력 1·2호기는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수행할 공사는 발전소의 기반이 되는 부지 정지 공사이다. 아울러 부지 정지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처리할 사토장 조성과 심층 취배수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호안 방파제

공사도 금년 중 착공되어 전체적인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공유 수면 매립 계획 등 인허가 지연 및 각종 민원 해결 지연으로 당초에 정해진 Milestone보다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과 현재의 인허가 해결도 불확실한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공사 착수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신월성 원자력 1·2호기 주설비 공사 착공을 2004년 4월 부지 정지 공사 착수 시점으로 보고 품질 관리·공정 관리·공사비 관리·자재 관리·자료 관리 등 사업 관리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여 공사 초기부터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다.

각종 기술 자료와 도면의 관리 센터가 될 자료관리실(DDCC)은 2004년 6월경에 전체적 가동이 가능할 것이며, 공정 전산화 및 발주처인 한수원과의 자료 정보 교환이 가능토록 하는 연계 작업도 2004년 중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작업에 대한 절차서를 조기에 작성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여 금년 말까지 전체의 약 50%를 완료할 것이다.

신월성 원자력 1·2호기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이 KEPIC이 품질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비하여 회사는 이미 본사 및 현장 임직원에 대한 KEPIC 기본 교육을 완료한 바 있으며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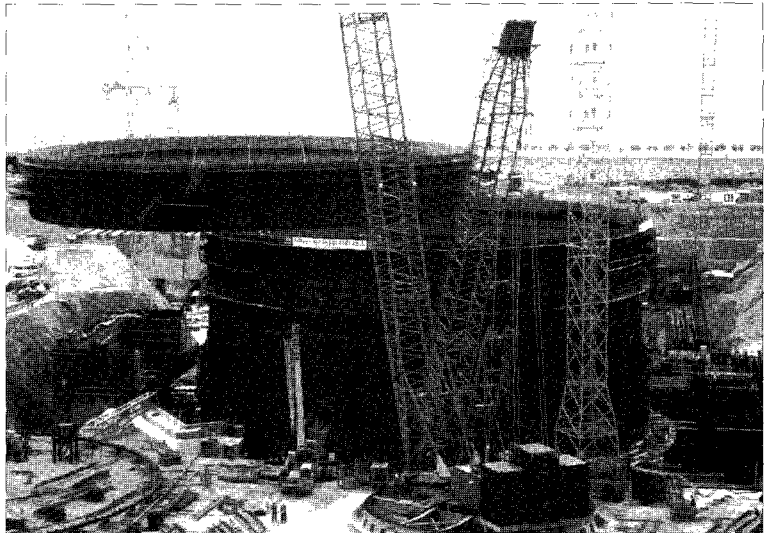
중에도 신입 사원 및 경력 사원에 대한 KEPIC 교육을 강도 높게 반복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새로이 건설되는 원전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월성 원전 삼중수소 제거 설비 공사**

국내에서 최초로 월성 원자력발전소내에 건설중인 월성원전 삼중수소 제거 설비 공사는 2004년에 본관 건물 및 월성 2·3호기 연관 구조물의 완성, 기전 공사의 약 80% 마감 및 시운전 작업의 착수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일 것이다.

회사는 작년에 사업 관리 책임자 (PM)와 현장소장을 비롯하여 핵심 기술자들을 약 10일간 동 시설과 유사 시설을 운영중인 캐나다에 파견하여 시설 견학과 아울러 건설 및 운전 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고 건설 및 시운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함으로써 최초로 건설하는 데서 발생할 수도 있는 시행 착오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동 설비는 우리 나라에서 유일한 설비인 만큼 여러모로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 내에서 공사가 진행되므로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많은 공사이지만 완전한 설비로 탄생시키기 위해 회사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후대에 두고두고 자



(주)대우건설은 국내 원전 시공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원전을 도입 추진중이거나 이미 원전을 건설중인 개발 도상국을 대상으로 기술을 수출하는 데에도 노력을 할 것이다.

랑거리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

**맺음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금년은 회사가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독자 경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원년이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듯이 금년은 여러 가지로 우리 회사에게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독자 경영의 원년인 금년도 우리를 둘러싼 기업 환경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작금의 부동산 경기 침체 조짐은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개척해야 하는 또 다른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시절 위기를 극복한 불굴의 도전 정신과 서로 단합하는

따뜻한 동료애를 발휘하면서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자력 사업이 회사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여는 신표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리라 확신하며 이미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회사가 지향하는 경영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건설 회사로서 거듭난 대우건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04년도 한해를 회사가 목표로 하는 초우량 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한 시발점으로 여기고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갑신년을 맞을 것을 다짐한다.

